

## 코로나19 확산 심각 ... 광주, 맞춤형 방역 시스템 가동

북구 '방역 중점관리지역' 지정 ... 방역 역량 집중  
확진자 계속 증가 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상향

광주시가 코로나19 확산 상황이 엄중하다고 보고, 광주 현실에 맞는 '광주만의 맞춤형 방역 시스템'을 가동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상향 조정에도 시민들의 이동량이 줄어들지는커녕 오히려 증가추세를 보이는 등 기존 방역 대책이 별다른 효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는 우선 집단 감염 사태가 잇따르고 있는 북구를 '방역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방역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으며, 감소세에 접어들지 않는 추세와 달리 확진자가 계속 증가할 경우 광주 전역의 사회적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상향하는 등 강도 높은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7일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에서 "코로나19 발생 초기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올리면, 시민 이동량도 줄고 확진자도 감소했는데 이전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시장 말대로 지난 7월까지만 해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높이면, 곧바로 시민 이동량(휴대전화 이동량 기준)이 42%나 줄어드는 효과를 봤다. 하지만 8월 들어 1단계(8월 3~22일)에서 2단계(8월 23~26일)로 전환하자, 2단계 전환 첫날인 8월 23일에만 12% 정도 감소했을 뿐 다음날인 24일에는 오히려 1단계 때보다 1.7%나 상승했다. 2단계에서 준3단계

인 2.5단계(8월 27~9월 10일)로 격상한 27일에도 전날보다 줄기는커녕 이동량이 되레 2% 정도 늘었다.

이 시장은 "8월 23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하고, 8월 27일부터는 3단계에 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는데도, 시민의 이동량이 줄지 않고 지역 감염자도 줄지 않고 있다"면서 "지난 7개월간 방역 대응 과정에서 생산된 데이터, 경험을 바탕으로 방역정책을 광주 실정에 맞게 새롭게 만들고 적용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1단계 첫 조치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북구를 방역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인력과 예산을 집중 투입하는 등 특별 관리한다. 북구는 이날 오후 2시 현재 광주 누적 확진자 439명 중 해외 유입(47명), 타 시도(4명) 확진자를 제외한 388명 가운데 212명(54.6%)이 발생한 상황이다.

8월 기준 북구 인구가 광주 전체의 29.8%인 점을 고려해도 북구의 확진자 비중이 매우 크다는 게 이 시장의 우려다. 집단감염(6명 이상 n차 감염)이 발생한 성림침례교회(56명), 광주사랑교회(41명), 일곡중앙교회(30명), 동광주약구클럽(15명), 배드민턴 동호회(14명) 등이 모두 북구에 있다는 점도 주목할 부

분이다. 우연일 수 있지만, 제2의 대규모 감염사태를 부른 8·15 서울 광화문 집회 참가 후 확진된 22명 중 10명도 북구 거주자다.

특히 최근 전국적인 코로나19 감소세에도 광주는 북구를 중심으로 시장 밥집(16명), 중흥 기원(7명), 동광주 탁구클럽 등 북구의 대표 재래시장인 말바우 시장 인근 시설에서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방역 당국은 최근 모집한 긴급 의료지원단을 북구에 우선 투입하고 추가 방역 예산도 즉각 지원하기로 했다. 또 말바우시장 주변에 선별진료소를 설치해 시장을 방문했거나 증상이 있는 주민에 대해선 무료로 진단 검사를 한다.

광주시는 2단계 대책으로 확진자 통계를 기반으로 오는 9일 민관 합동 대책위원회 회의를 거쳐 중점 관리시설에 대해서도 지역 실정에 맞게 추가 지정 또는 해제하는 등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일부 시설은 추가 지정 필요성이, PC방 등은 집합 시설 금지 해제 요구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시는 이 밖에도 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특정연령대가 많다는 점에도 주목하고, 고령자 대상 맞춤형 방역수칙 홍보 활동 강화 등을 비롯한 취약지역 내 방역 물품 집중 지원 등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방역 정책을 단계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7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낙연 "재난지원금 고통 더 큰 국민 먼저 도와야"

첫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2단계 공공기관이전 신속 추진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7일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의 맞춤형 지급 방침에 대해 "고통을 더 크게 겪는 국민을 먼저 도와드려야 한다"며 "그것이 연대이고, 공정을 실현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취임 후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바이러스는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 그러나 그 고통은 평등하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동시에 어느 국민도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사각지대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런 관점으로 정부는 올해 네 번

째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하고 있다"며 4차 추경안의 조속한 처리를 여야에 당부했다. 특히, 이 대표는 "국난을 헤쳐가는 동안이라도 정쟁을 중단하고 통합의 정치를 실천하자"며 "사실상 중단된 여·야·정 정례 대화를 다시 시작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어 "국가 균형발전을 더는 미룰 수 없다"며 "2단계 공공기관 이전과 혁신도시 추가지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해서는 "국회 내 균형발전특위가 조속히 가동돼 이 문제를 결정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8·15 광화문 집회를 거론하며 "개천절에도 비슷한 집회를 열려는 세력이 있다"며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불

법 행동은 이유가 무엇이든 용납될 수 없다. 법에 따라 응징하고 차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대표는 "제가 꿈꾸는 대한민국은 함께 잘사는 일류국가"라며 행복국가, 포용국가, 창업국가, 평화국가, 공헌국가 개념을 제시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 광주 군공항 이전 논의 담보 상태 민간 공항 이전 '신중 모드' 전환

이용섭 시장 "시민 생각 종합"

광주에서 민간공항의 무안공항 이전에 대해 부정적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광주 군 공항 이전이 담보 상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그동안 군 공항과 별개로 민간공항을 무안공항과 통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으나, 지역 내 여론을 의식한 듯 신중한 태도로 돌아선 모습이다.

이 시장은 7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들과 만나 "행정이라는 게 시민을 위한 것이니 시민 생각, 광주-전남의 미래와 상

생, 국방부와 전남도의 자세 등을 종합해서 때가 되면 (민간 공항 이전)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광주시 온라인 소통 플랫폼인 '바로소통 광주'에 해당 안전이 접수돼 토론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지금은 (구체적인) 이야기를 안 하는 게 좋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시민의 제안을 정책화하는 '바로소통 광주'에는 최근 "민간 공항 이전은 군 공항과 함께해야 한다"며 "시민의 충고를 모아 군 공항 문제 해법을 찾고 민간 공항 이전을 진행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제안

이 올라와 시민 토론 절차가 진행 중이다.

광주에선 민간공항 이전을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광주 군공항 이전 시민추진협의회는 지난달 27일 기자회견을 갖고 광주 민간공항 우선 이전 중단을 촉구했으며, 광주시의회 이정한 의원이 지난 2일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전남도가 2018년 군공항 조기 이전에 협력을하기로 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협약(광주 민간공항 이전) 내용을 전면 무효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 고의 교통사고 이과 조심하라 ▶6면  
굿모닝 예방-옛날 감성 요즘 감성 ▶18-19면

## 첫눈에 반하고 스케일에 놀라다!

강남이 부러워하는 고품격 단지특화 디자인으로  
광주에서 볼 수 없었던 2,490세대 프리미엄 대단지가 펼쳐집니다!

**사이버모델하우스 운영중**  
[www.gj-jnd.com](http://www.gj-jnd.com)

**중흥S-클래스 & 두산위브더제니스**

**특별공급 9월 14일(월)**

**1순위 9월 15일(화)**

**2순위 9월 16일(수)**

**당첨자 발표 9월 22일(화)**

총 2490세대 | 아파트 2240세대 | 오피스텔 250실

문의 **062-362-9877**

사명 임동(유동)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 사명 **중흥토건** (doosan) 두산건설  
주택전시관 : 광주광역시 북구 경열로 275 | 현장 : 광주광역시 북구 임동 76번지 일대

\* 상기 투시도는 사업승인 도면을 바탕으로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CG로서 실제 시공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출입구 디자인, 조정시제, 옥탑부, 정호형태, 외부색채 및 마감, 포장계획, 시설물 등의 위치는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